조봉완 선배님 (서울법대) 회고: 90 회 생신을 맞으며.

Questions
1.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두 번의 전쟁을 겪으시면서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2. 서울대학교 법대에 진학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당시 법대에서 유일한 여학생이셨나요?
3. 언제 그리고 어떻게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셨나요?
4. 뉴욕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억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5. 남편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나요?
6. 역사를 공부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대학에서의 지도교수는 누구였나요?
7. 어느대학에서 가르치셨나요?
8. 선배님의 책과 회고록 출간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9. 자녀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1.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두 번의 전쟁을 겪으시면서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저는 1934 년에 서울서 태어 나서 11 년을 일제 하에서 살았습니다.
1937 년 부터는 태평양 전쟁이 격화하여, 일 정부가 2 가지 draconian ordinance 를 발포 했습니까.
i) 조선인 전부에게 창시 강요
ii) 집밖에서의 일본어 전용
그런데 저의 아버님께서는 끝까지 창시를 안하셔서 제가 일본인 선생 한테서 매일 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의 타고 난 조씨가 풍양 조씨 라는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성을 어떻게 버리는냐 타일르셨습니다. 19 세기 전반 조선 조에서 2 성이 세도 정치를 안동 김씨와 번갈아 가면서 정치를 독점 했던 조씨 입니다.

2. 서울대학교 법대에 진학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당시 법대에서 유일한 여학생이셨나요?
서울 법대 가는것은 아버님이 판사를 거치신 변호사 이시라 맞딸이고 바보가 아니라 당연하다 생각하여 그곳 한곳만 지원 했습니다. 10 째의 성적을 들어 갔습니다.
여학생이 20 이내 였다고 기역 합니다.

3. 언제 그리고 어떻게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셨나요?
그렇게 힘든 대학을 들어 갔는데 제대로 교육이 진행 돼지 않았습니다. 남학생들은 차례로 도장 을 모아 출석부에 찍고, 깊은 산 절간 에 가서 고등고시 공부 에 몰두 했습니다. 나도 그러면 안돼냐 부모님께여쭈어 봤더니 여자가 어떻게 그러느냐고 확고하게 불허 하셨습니다.
2 학년초에 2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한국 최초의 여 판사가 자살을 해 사회적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2 째로는 제가 법관이 된다는것에대한 매력을 잃었습니다.
20 이 넘어 장래 생활에 대하여 생각 해 보니 대학 교수를 하면 결혼후 생활 하는데 제일 잘 맞겠다 생각 했습니다.

이미 한국 최고 선망의 대학에 있으니 어디로 전학 가겠습니까? 해외로 가는 갈 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서울 법대와 문리대는 혜화동에 있었고 저의 집은 청운동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갈려면 서울 시 중심지를 지났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다가 미대사관 공보실 (USIA, US Information Agency) 에 들려 미국 대학의 catalogue 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류 Ivy League 대학이 7 개가 있으나 남녀공학 아니고, 그대신에 7 개의 여자 대학, Seven Sisters college 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 대학 3 울 선택 했습니다, Radcliffe, Vassar, Barnard. 세 곳에 지ㅣ원 했습니다.
문의 편지 뿐 아니라, 처음부터 저의 대한 자료를 다 첨부하여 두틈한 봉투를 항공편으로 부쳤습니다. 세곳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평생 서울서 살았기 때문에 큰도시에있는 Barnard 를 선택했습니다 .

4. 뉴욕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억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Barnard 에서 3 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정말 멋졌고,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몰랐던 것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는 자만심이 사라졌습니다. 제 시각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5. 남편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나요?
또한 그곳에서 제 미래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그를 만난 것은 1957 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고, 그 모임에서 유일한 여학생이었던 저는 서기로 임명되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그는 정장과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모임의 회장은 그를 자신의 룸메이트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공보 참사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한 후 제가 서기로서 메모를 하고 있던 방 끝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구두가 보였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멈추더니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음, 예의 바르고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넘겼고,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기도 고등학교 행사에서 그를 보았는데, 특히 저의 선배 사촌인 순조가 메인에서 뉴욕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1958 년 3 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플라자 호텔에서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측면을 선보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뉴욕 한국 총영사관에서는 한국 전통 혼례를 무언극으로 보여주는 행사를 준비했으며, 나레이터가 설명을 덧붙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나레이터로, 미래의 남편은 당시 가장 유명한 여배우였던 최지애와 함께 신랑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리허설은 3 월 초부터 총영사관의 지하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그는 저에게 다가와 집에 데려다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데려온 사람과 함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는 “아, 그 사람을 아는군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해볼게요."라고 했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돌아와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제가 그와 함께 집에 가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의 대담함과 자기 확신에 놀랐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가 뉴저지 주차장에 있다고 하며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맨해튼에 차도 없으면서 저를 기숙사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여자도 집에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를 건방지거나 오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고, 콜럼비아 캠퍼스로 가는 내내 조용히 있었습니다. 116 번가와 브로드웨이 근처 기숙사에 도착할 무렵 저는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를 붙잡고 우리는 먼저 대학원 무용학과 학생을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인터내셔널 하우스 문 앞까지 신중하게 데려다 주었고, 그녀가 들어가는 것을 기다린 후 택시에서 혼자 삐져 있던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방금 지나온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기숙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알아요, 알아요. 당신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바너드는 힘든 학교라는 걸 알지만,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기숙사 통금 시간 전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숙사 근처를 지나 110 번가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학생들이 자주 가는 밤 문화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시끄럽고 붐비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맥주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맥주를 안 마셔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콜라가 있어요."라고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코너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자리가 하나 막 비었어요." 웨이터는 우리를 가장 먼 코너 부스로 안내했습니다. 몇 분만 앉을 줄 알았던 우리는 몇 시간이 지나 통금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지 당황했지만, 예의상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시간을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1958 년 봄과 여름, 그는 저에게 빠져들었던 것 같고 저는 그를 따라갔지만, 거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8 월 초, 그는 정치학 및 국제 관계학 박사 과정을 위해 8 월 말에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대학교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는 그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8 월 15 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는 그것을 잊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한 교수님의 아파트에서 하우스시팅을 하고 있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고,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갑자기 밝고 쾌활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일 축하해, 내 사랑."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꽃다발이, 다른 손에는 분홍색 리본이 달린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반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어 내 손을 잡고 반지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이마에 키스를 하며 "나와 결혼해 줄래?"라고 물었습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루 종일 그가 연락하지 않은 것을 원망한 것이 후회되었고, 제가 그를 생각보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제

눈물을 닦고 저를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그는 단순히 “곧 알게 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30 분도 안 되어 우리는 맨해튼 주변을 도는 유람선에 탔습니다. 짙은 파란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유리잔을 부딪쳤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이번에는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6. 역사를 공부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대학에서의 지도교수는 누구였나요?
저는 항상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읽기를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저에게 세계의 위인들의 전기를 가져다주셨습니다. 10 살 때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기에 조지 워싱턴과 체리 나무,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또한 한국 왕조의 몰락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이면의 이야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으며,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댄포스 재단의 여성 대학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후에 대학 최초의 여성 총장이 되어 15 년간 재임한 Hanna Gray 교수님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후, 제 박사 학위 위원회에는 중국계 미국인 교수, 두 명의 일본계 미국인 교수, 그리고 유대인 혈통의 백인 교수인 필립 A. 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정말로 큰 도움을 주신 분은 마지막에 언급한 쿤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결혼한 여성이고 세 자녀를 둔 엄마이며, 위스콘신 주 밀워키 북부 교외에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쿤 교수님에 대해 북서부 대학교의 Ollie 수업에서 글을 썼습니다:[43. 필립 A. 쿤 교수님]

우리는 1969 년 워싱턴 D.C.에서 결혼한 지 10 년 만에 위스콘신 주 글렌데일에 정착했습니다. 글렌데일은 밀워키 북부 교외에 위치한 곳으로, 좋은 공립학교로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 D.C., 버지니아 주 알링턴,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 그리고 밀워키(시내)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곧 다시 이사할 것 같지 않았지만, 어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970 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군사 독재 정권이 확립되면서 남편의 오랜 한국 정치 진출 꿈은 더 멀어졌습니다. 동시에 그의 미국 학문적 경력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1968 년 책 '한국: 민주주의 재판'이 아시아 연구 커뮤니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책 때문에 그는 한국 입국이 금지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는 조교수로 승진했고, 밀워키 마켓 대학교 정치학과의 학과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비백인, 비원어민이 미드웨스트의 가장 인기 있고 강력한 학과 중 하나를 이끄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댄포스 재단 여성 대학원 장학금을 5 년 동안 받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2,000 명 중 200 명이 신청했고, 그 중 60 명이 인터뷰를 거쳐 처음으로 선정된 20 명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이 장학금은 미국 고등 교육에서 여성 학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둔 댄포스 재단(전 GOP 상원의원 댄포스 가문)이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KC 는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와 첫 아이를 기대하고 있을 때 제 대학원 공부를 계속하라는 그의 주장이 정당화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석사 학위를 받은 후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저는 밀워키에서

시카고 대학교로 통학했습니다. 밀워키에 있는 대학들(UWM 과 Marquette)에는 아시아 연구 박사 과정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위스콘신 주 매디슨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프로그램을 시작한 미네소타 대학교의 지도교수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저에게 U of C 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첫 2 년 동안 기차와 버스로 통학했습니다. 통학 시간은 편도 3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새벽 5 시 전에 일어나 자신을 준비하고,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리고, 큰딸 제인이 일찍 일어나서 저에게 두 가닥으로 머리를 땋아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아빠가 제대로 못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KC 는 저를 밀워키 유니온 역까지 데려다 주어 시카고로 가는 6 시 기차를 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시카고에 7 시 30 분에 도착해, 시내 버스를 타고 일리노이 센트럴(현재 메트라) 기차를 타고 59 번가 남쪽으로 내려와 59 번가 사회과학 빌딩까지 반 마일을 걸어갔습니다. 역사학과가 위치한 이 건물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내려가는 길에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잠을 자서 가족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문 앞에서 저를 꽉 껴안으며 맞이했습니다. 저는 주말 동안 미리 요리하고 얼려둔 음식을 즉시 데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데운 음식을 꿀꺽꿀꺽 먹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장거리 통학의 모든 신체적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억을 쓰면서, 제 자신도 믿기 힘들 정도로 미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눈 오는 날, 부서의 중년 행정 비서였던 Mrs. S 는 폭풍우 속에서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고 어린 아이들을 집에 두고 온 것에 대해 저를 꾸짖었습니다. 평소에 친절하고 지지해 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말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필요 이상으로 야망적이고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그런 비난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저를 잘 알고 있는 친구와 적들 모두가 제게 과도한 결단력을 보이고 있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부서 사무실을 떠나면서 저는 자주 그녀의 “누가 그녀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논문 작성 단계에서 시카고 대학교로의 여행은 덜 빈번했습니다. 약속이 있을 때, KC 는 때때로 아이들과 함께 저를 데려가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밀워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시카고의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 주요 지도교수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필립 A. 쿤 교수님이셨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의 모교로 돌아가 중국 역사의 저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쿤 교수님의 부인은 중국 출신이었으며, 베이징 항구 도시인 톈진의 전 시장의 딸이었습니다. 쿤 교수님은 1958 년 처음 출간된 에드윈 O. 라이셔와 존 K. 페어뱅크가 쓴 '동아시아: 위대한 전통'의 '서문'에서 가장 재능 있는 젊은 학자 중 한 명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책은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 연구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라이셔 교수님은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으며, 나중에 일본 대사로 임명되었고, 페어뱅크 교수님은 미국에서 동아시아 연구의 대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쿤 교수님의 첫 번째 박사 과정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와 제가 같은 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배려와 친절이 없었다면 저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연구 박사 학위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혼한 여성이며 세 아이의 엄마이고 장거리 통학을 하는 상황을 고려해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저의 체력과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는 제 박사 학위 위원회의 의장이었습니다. 다른 세 명의 교수들이 있었는데, 일본 외교관의 아들이자 미국 외교사 학자인 아키라 이리에 교수님, 하와이 출신의 2 세대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도쿠가와 일본 전문가인 테츠오 나지타 교수님, 그리고 명청 중국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출신의 덩치 큰 호핑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중국의 성공의 계단'(컬럼비아 대학 출판부, 1962)이라는 획기적인 작품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1974 년 여름이 끝날 때까지 박사 학위를 받을 것이 확실해지자, 저는 시카고 하이드 파크에서 2 시간 반 떨어진 글렌데일의 집에서 쿤 교수님, 나지타 교수님, 이리에 교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세 분 모두 그들의 배우자와 함께 오셨습니다. 쿤 교수님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 앤서니도 데려오셨습니다. 몇 십 년 후 뉴욕 시에서 하버드로 옮겨가신 쿤 교수님이 동문 모임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동아시아 연구 분야의 많은 재능 있는 학자들과 떠오르는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기뻐하셨고, 저를 자신의 "첫 박사 과정 학생"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몇 십 년 후, 저는 동아시아 연구 학회에서 쿤 교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1894-1895 년의 제 1 차 중일 전쟁에 관한 패널 발표자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을 놓고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제 논문에는 이 전쟁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19 세기 말 중국, 일본, 한국 사이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전문가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운명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대한 두 번의 일본 승리 중 첫 번째(두 번째는 1937 년)의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의 승리는 국제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섬나라 일본이 2,000 년 동안 '문명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거대한 중국 제국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국 제국의 종말의 시작이자 19 세기에서 20 세기로 넘어가는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현대 제국주의 강대국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쿤 교수님은 제 논문의 모든 단계에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중국인 아내와 결혼한 그는 중국과 한국과 같은 천천히 현대화되는 나라들의 몰락의 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의장에서 저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너를 만나서 정말 기뻐. 이 책을 너에게 선물하려고 했어. 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방에 전달하도록 책상에 맡겨 두려고 했어. 이건 내 최신 출판물인 '영혼 도둑들'(하버드, 1990)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호텔의 거대한 홀 벽에 있는 작은 원형 테이블과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책에 서명을 하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붉은색 속표지에 “내 친구 보니와 존 오에게, 존경과 애정을 담아”라고 썼습니다. 저의 교수님이 저를 친구라고 부르며 존경한다고 쓰다니!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2017 년에 제가 '궁중 살인 사건'을 출판했을 때, 저는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제 3 회 팔봉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보내고 싶었던 사람은 제 멘토였습니다. 그 책은 19 세기 말 한국 왕비를 일본이 암살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가 그것을 읽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의 연락처를 온라인에서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대답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쿤 교수님은 2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는 분명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 후 곧, NPR 에서 쿤 교수님의 목소리와 너무 흡사한

목소리가 들려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럴 리가... 그것은 그의 아들 앤서니였습니다. 서울에서 보도 중이었습니다.

7. 어느대학에서 가르치셨나요?

제가 지금처럼 조지타운과 같은 엘리트 대학에서 은퇴한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격려 덕분입니다. 1959 년 9 월에 결혼하고 바너드를 졸업한 직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공부에 싫증이 났고, 주부와 어머니가 되는 것이 멋진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격려하고, 달래고, 심지어 위협까지 하며 계속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수업에 저를 데려다주고 데려올 것을 약속했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조지타운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단계가 끝나자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댄포스 여성 대학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제 첫 정규직 교수직은 시카고 로욜라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69 명의 다른 지원자를 이기고 그 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적시에 종신 재직권을 얻고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종신 재직권과 승진을 받은 지 2 년 후, 저는 인생의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제 남편은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 있는 마켓 대학교 대학원 학장으로 일하던 중,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가톨릭 대학교에서 학문적 부총장 직책을 제안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학 프로그램을 함께 만든 페미니스트 동료들은 남편을 따라가는 것에 절대 반대했습니다. 한국 전통 사상을 주입한 제 어머니는 "남편은 '소천'(작은 하늘)이다"라고 하며 제가 남편과 함께 이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것이 그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명한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결정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너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대학 직책은 별을 잡는 것보다 더 얻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 단계씩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무급으로 가을 학기를 쉬고 우리 가족을 D.C. 지역으로 이주하고 정착시킨 후, 그곳에서 직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1986 년 7 월 말, 우리는 집을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메릴랜드주 포토맥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방문하고 머물 수 있도록 4 개의 침실이 있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아이들은 곧 결혼할 것이었고, 곧 손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머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집을 정돈하기 위해 악마처럼 일했습니다. 전문 청소, 페인팅, 커튼과 드레이프 설치 등으로 집을 꾸몄습니다. 두 달 안에 집은 저녁 파티를 열기에 적합해졌습니다. 부총장은 다양한 학장들, 교수 회의 임원들,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로 구성된 여러 그룹을 친밀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겨울 학기를 가르치기 위해 시카고로 돌아가기 위해 1 월에 D.C. 지역을 떠나기 전, 저는 최소한 세 번의 저녁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가톨릭 대학교 사람들이 그가 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애플 파이처럼 정상적인 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추운 시카고에서 저는 겨울 학기 동안 가르치기 위해 대학원 기숙사에 방을 임대했습니다. 밤에는 저는 DC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등 교육 연감'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2006 에 죠지타운 대학에서 은퇴 했습니다. 미국대학에서 38 년 교편 잡았던 일을

종말 지었습니다. 다음해인 2007 년에 22 년 살던 포토막 매리랜드를 떠나 시카고 지방으로 이사 했습니다. 우리 양주가 나이가 들어 가면서 자식이 한나도 가까히 없다는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아이가 다 다른 주 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사하는 큰딸은 미네소타에, 회사 변호사 하는 둘째딸은 캘리포니아에, 막내이자 아들은 변호사로서 시카고에 있는 로펌에서 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해안으로 이사 하기 전에 미국 북중서부에 살았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곳을 다시 찾아 시카고 부쪽 서법 도시 에반스톤으로 정하고 단독 집이 아닌 콘도로 이사 했습니다. 고층 건물의 15 층에 자리를 잡았는데미시간 호수가 보이고 매일 아침 아름다운 해 오름 을 맞을 수 있는 곳 입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고, 집걱정을 안하고 여행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좋아 하 있었는데, 저의 남편의 건강이 차차 안 좋아 지기 시작하여 3 년을 채우지 못하고 향년 79 세에 타계 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고려장" 이라는 폐습 이 나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그이를 따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모질어 사는 사람은 살게 되더라고요. 벌써 14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그이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거죽으로는 명랑한척, 행복한척, 기쁜 척 하지만 속은 숯 같이 타는 것 같을 때가 허다 합니다.

8. 선배님의 책과 회고록 출간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저도 그이의 타계후 글쓰는데 에 소일 하게 되어 책세권을 출판했습니다. 그세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Phoenix in a Jade Bowl, 옥 그릇 안의 봉황새," "Murder in the Palace, 궁내의 살인," 명성 황후 시해 사건 역사 소설 (한글판 포함), "Longing for Mother, 어머니를 그리워 하며."
지난달에는 한국에서 모셔온 이창봉 시인/교수 지도 하의 시 창작 특강에 참여 하였습니다.

9. 자녀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나마 댜행 하게도 애들이 다 자기들 가정을 이루고, 자기들 앞가림 할수 있는 일들을 의사와 변호사 들로서 하고 있어 이 늙은이의 걱정을 덜어 줍니다.

세월의 흐름은 막대기로도 지름길로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 어느새 제가 90 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세아이들이 서둘러 종수 90 의 잔치를 연다 해서 말렸으나 아빠 고집을 닮은 애들을 이길수 없어 90 명의 일가 친지를 모시고 생일 본일 이틀후인 8 월 17 일 토요일에 오찬을 마련했습니다.
아들 딸, 그들의 배우자, 손자손녀, 그들의 친구 들, 이화여고, 서울대 동문, 한인친구, 타 인종친구들 -- 많이 참석 해주시고, 축하 해 주셔서 말문이 막혀 표현하기 힘드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남편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저는 학문적인 목표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조봉완